

서로

SEORO SEORO

A QUARTERLY PUBLICATION OF SEORO KOREAN CULTURAL NETWORK

Responses to *Across the Pacific: Contemporary Korean and Korean American Art*

Across the Pacific, an art exhibition featuring the vision and talents of Korean, Korean American, and Korean Canadian artists, was presented at the Queens Museum of Arts in New York City from October 15, 1993 to January 10, 1994. The exhibit showcased paintings, sculptures, works on paper, mixed media, film, and video, and explored a wide spectrum of issues crucial to the understanding of how both history and contemporary events affect the nature of the burgeoning Korean diaspora. The exhibit originated

in the fall of 1990 when **SEORO** Korean Cultural Network first proposed this project to the Queens Museum. The organizers of *Across the Pacific* were Jane Farver and Young Chul Lee.

Perhaps a good barometer of the success of an art exhibit is the debate and dialogue it creates among its artists, organizers, and viewers. Certainly, *Across the Pacific* has generated much discussion. A number of mainstream newspapers and art journals, as well as several ethnic and alter-

native publications, have reviewed and commented on the exhibit, offering a wide range of commentaries, both positive and negative, and often insightful and at times somewhat inane. For this issue of **SEORO**, we have asked a number of people who attended the exhibit to give us their responses to *Across the Pacific*. We hope these responses will add to the existing discourse surrounding not only this particular exhibit but to the discourse surrounding the global production of Korean art in general.

SEORO

continued on next page

Across the Pacific: Observations

Dae Young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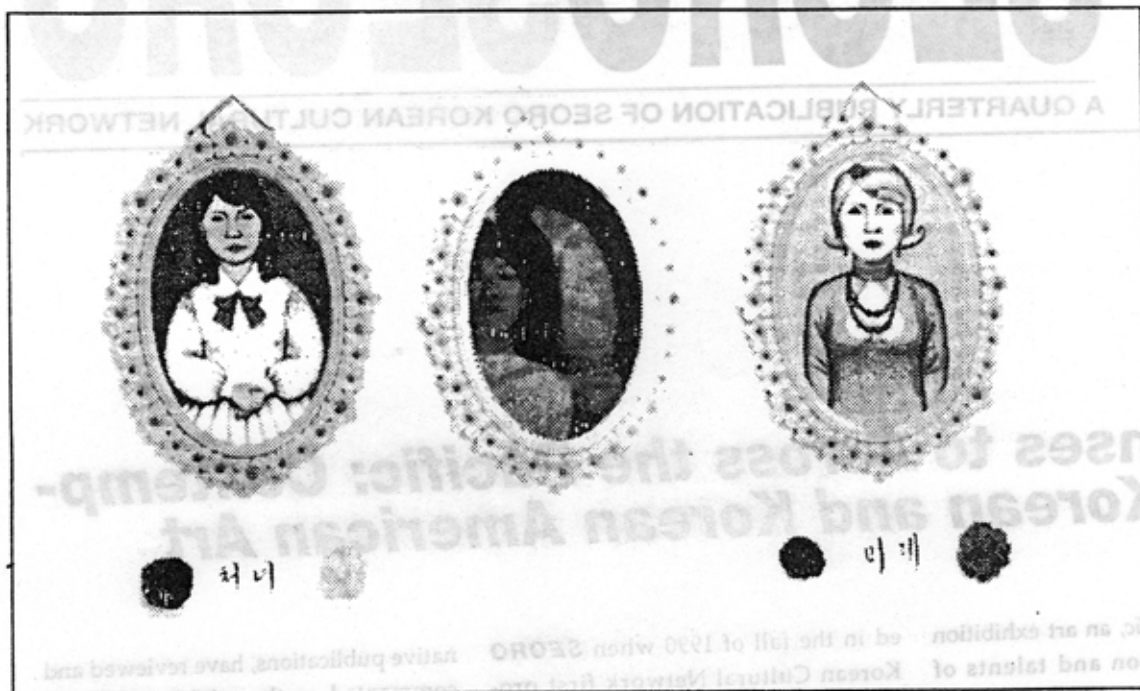
February 1994

What does it mean to be a Korean, an American, a Korean American? This is an often asked question among Korean Americans of my age/generation. On this recent occasion during an

my parents decided, for better economic opportunities, to "venture" an immigration "enterprise" to Paraguay, a landlocked country at the heart of South America. This country is bordered by the two giant countries of Brazil and Argentina and by the only

into account, too.

Hence, within an immigrant community, as a 1.5-generation Korean Paraguayan American male, with a non-cultured view (meaning not having been very much exposed to the culture of museums and so forth), what I



"Peeping(detail)" by Soo-Kyung Lee
Mixed media, 1993

exhibit of Korean American and Korean artists' works at the Queens Museum, I was particularly struck by the difference in themes between the two groups. Most of the Korean American artists endeavored to explore one's search for identity while the general theme that concerned the Korean artists was the Korean movements and struggles of the decade of 1980s.

As a member of the lay audience, my own personal history in this search for identity would clarify my own biases and experiences. I was born in South Korea and at the age of eight,

other landlocked country in South America, Bolivia. After ten years of childhood and adolescence in Paraguay, I came to the United States for college in 1987. My parents subsequently re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in 1990. What has all this meant for me? It is not easy to answer this in a few paragraphs. But I feel I am in an arduous process myself of discovering and defining what all this means. But we should have in mind that geography and immigration are not at all definitive of our identity. There are other important facts of gender and class background that we need to take

found basic to all the Korean American artists' works was the theme of the assertion of the artists' respective experiences. The loose term Korean American cannot encompass the diverse experiences of these Korean American artists to form one single identity of "Korean American." Perhaps this is too obvious of a fact. However, as illustrated by the work of Sung Ho Choi, the burned-down immigrant family grocery store of an aspiring Korean American family demonstrates the artist's own experi-

continued on next page

ences of hopes, dreams, and frustrations, which have forged his identity formation into a specific direction rather than another. In contrast, other Korean American artists emphasized other realities within that broader Korean American category. For example, some of their work seemed to be permeated by a primordial necessity to assert their individualism which is very much characteristic of the larger

individualist ideology that pervades American culture. My own limited experience may make it less possible or more possible for me to relate to the issues and concerns with the works that these artists in one form or another are trying to convey. Artistic appreciation is very much dependent upon the material, gender, racial, time, and spatial contexts. Then how much of a commonality or of a collectivity does

the meaning of being Korean American carry? Probably the commonality arises out of the recognition that there are deeply rooted structural barriers in the form of sexism, racism, classism (all these isms) within the American society. The collective effort is to strive towards the dismantling of these structural arrangements without falling into an essentialist view of Korean American identity.

박혜정 (서로문화연구회원)

지난 10월 15일 뉴욕에 자리잡고 있는 퀸즈미술관(The Queens Museum of Art)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오늘의 한국미술"전이 열렸다. 앞으로 3개월간, 이곳에서 한국과 북미(미국, 캐나다)의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는 양쪽 작가들의 작품들이 공동 전시되는 것이다. 이 전시회의 의의는 한반도와 이민사회가 각기 다른 역사적, 사회적 배경속에서 형성한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한편, 미국의 미술계 및 일반인들에게 우리 한인의 '발언'을 표출함으로써 한국인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돕자는 데 있다.

1991년 가을부터 2년간 이 행사기획에 관여했던 '서로문화연구회'의 일원인 필자에게는 이 행사의 개막일에 두가지의 잊갈린 감회가 있었다. 하나는, 늘 주변부에서 맴돌던 한인작가들의 작품이 나름대로 주류부류에 속하는 장소에서 전시되어 한국, 미국 양쪽의 문화계에서 어느정도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데서 오는 흥분감이었다. 다른 하나는, 2년전 '서로'가 퀸즈미술관에 이 행사기획을 제의한 이래 그간의 추진과정속에서 백인중심 문화기관이 우리 한인측 기획자들에게 보여준 냉대와 무시를 허울좋은 '복합문화주의(Multiculturalism)'로 교묘하게 포장하여 대중에 선사했다는 데에서 오는 분노였다.

전 세계각지에서 온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살기에 '인간전시장'이라 불리우는 뉴욕시는 5지역구로 나뉘어져 있다. 그 중의 하나인 퀸즈는 아메리칸드림을 안고 공항에 막 도착한 이민자들의 첫 정착지로서 많이 알려져 있다. 퀸즈의 끝인 플러싱은 한인동포들이 대거 집주하여 뿌리를 내리

고있기에 '코리아타운'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뉴욕시 중심가와 퀸즈구역을 잇는 7번 지하철에 몸을 실으면, 차 한칸에서만도 다민족 집합체의 현장을 여실히 볼 수 있다. 타고있는 타민족들의 종류만 헤아려도 20이 족히 넘는다. 멕시코인, 중국인, 한국인, 그리스인, 아일랜드인, 큐바인, 인도인 등등. 피부색도 그들이 입고있는 신문의 글씨도, 모두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재미있는것은 각각의 지하철역 중심으로 모여사는 민족이 다르다는 것이다. 퀸즈의 첫번째역인 퀸즈블루바드에서는 그리스인, 그 다음부터 차례대로 아이랜드인, 도미니카인, 인도인, 콜롬비아인, 중국인, 한국인들이 각각의 역에서 많은 수가 타고내린다.

이러한 지하철 한칸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1960년대말 이민정책개정 이후 쏟아져 들어온 소수민족인들의 증가로 달라진 미국전체 인구지도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인디언들의 주점위에 올라선 콜롬부스의 후예들은 이민노동자들을 이용하기 위해 1930년대부터 '도가니탕(Melting Pot)' 이론을 모토로 내걸고 이민자들에게 그들 고유의 문화를 버리고 앵글로색슨의 백인문화에 융해되어 새롭게 하나된 미국을 건설하자고 회유하고 강요했다. 그들은 백인들의 가치기준에 적합한 인간도구를 만들어내기위해, 유색인종들을 대상으로 백인중심의 이데올로기를 철저히 반영하는 교육, 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갔다.

하지만, 이 '도가니탕'정책은 이민자들에게 쉽게 먹혀들어가질 않았다. 이민자들

은 흡수되기는커녕, 이 미국대륙을 실제로 크고 작은 다양한 민족문화영지로 만들어 나갔다.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의 한인들, 서남부쪽의 멕시코인들, 중서부지역의 캄보디아인들, 보스톤의 아일랜드인들,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의 중국인 등은 특정지역에 군거하며 백인문화에 항복할 것을 완강히 거부했다. 이 소수민족들은 모든특성이 하나로 녹아드는 '도가니탕문화' 대신에 '샐러드문화'를 주장하며 '복합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이론을 펴나갔다. 양파, 오이, 버섯, 시금치 등의 날채소들을 한 용기에 담지만 각각의 고유의 맛을 잃지 않게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들이 내세우는 '복합문화주의'는 각기 다른 유색인종들이들이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이땅에 살기 위하여 그들의 특수한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들의 이러한 요구가 중심부문화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60년대이후 활성화 된 흑인인권운동과 이민자들의 거센 반발로 미국의 지배층은 당황하기 시작했으며, 백인들은 이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위해 '복합문화주의'를 채택한다는 제스처를 보이기 시작했다. 90년도에 들어선 현재, '복합문화주의'라는 단어는 문화계의 유행어로 남발되고 있다. 뉴욕의 문화소식지는 아프리카 댄스, 멕시코 미술전, 아시아영화제, 안데스 인디언 음악회 등의 오색찬란한 문화행사로 채워져 '복합문화주의'가 완전히 실현된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걸으로 드러난 다채로움으로 '복합문화주의'의 승리를 인정할 수 있는가?

우리가 '복합문화주의'에 관한 논쟁을 펴 나갈때, 이는 단순히 '문화행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는 정치에 관한 것이며, 힘의 관계에 관한 것이며, 사회저변에

continued on next page

면면히 흐르는 문화의식에 관한 것이다. 이는 또한 사회 및 문화계로부터 배척당해 왔던 억압당한 자들의 "표현과 발언"에 관한 것이다.

오랜동안, 소수민족들의 이미지는 대번자인 백인들에 의해 무척하게 이지리지고, 부정적인 고정적 이미지만 더 깊게 파여졌다. 그나마, 최근에 들어서는 몇몇 적은 수의 유색인종예술가들이 백인문화관료들에게 붙여 작가로서, 임시기획자로서, 발제자로서 '복합문화주의' 시장에 팔려나가는 하지만, 아직도 미국의 작고 큰 문화기관의 중요한 정책결정자들은 여전히 백인들이다. 물론, 상업 영화, 음악, 연극 등은 백인 기업주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들 백인요리사들은 자기구미에 맞는 종류의채소에다가 미세 소스를 듬뿍 뿌려 샐러드랍시고 식탁에 올려놓는 것이다. 이 샐러드의 오이, 양파, 비릿은 색깔과 모양만 다를 뿐, 씹을때는 똑같은 미세소스맛만 난다. 결국 요리사에 의해 샐러드의 맛이 완전히 바뀌는 셈이다. 예를 들어, 뉴욕의 공공미술관중의 하나인 부르클린미술관의 아시아부와 아프리카부의 책임자들이 모두 백인들이며 그들이 그 지역들에 관한 전시기획을 한다. 상업판의 예로는, 중국이민가정의 얘기를 다룬 에이미 탠(중국계 미국인)의 소설 'The Joy Luck Club'(행운의 클럽)이 올리버 스톤 프리덕션에 의해 할리우드 영화화되어 엄청난 관객을 끌고 있고, 원래 정치, 사회, 인종문제 비판을 내용으로하는 흑인들의 랩 뮤직은 그 의도와는 관계없이 백인들이 식민하고 있는 오디오, 비디오시장의 가장 큰 상품이 되어버렸다.

다국적기업들이 국제화시장에서 자기의 제품을 팔아먹을적에, 그 특정국가 및 지역의 취향에 맞게 상품의 모양, 색깔, 크기를 교묘히 가공하는 것처럼 미국의 문화장사꾼들도 되도록 많은 이들에게 소스를 팔아먹기위해, 샐러드만 원하는 이들에게 소스 친 샐러드만 내놓는 것이다.

이러한 주류문화계의 추세를 알고있으면서도, 설마 다민족집합지인 퀴즈의 문화기관은 뭔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서로'의 한인문화활동가들은 퀴즈미술관에 접근했다. 한인일집지역인 퀴즈에 당연히 한국미술전이 한번쯤은 있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서로'가 "태평양을 건너서"의 기회안을 들고 미술관관장을 만나러 갔을 때, 처음 필자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백인관료들과 직원들로 꽉 차있는 하얀 사무실이었다. 박물관 입구에서 흑인 수위 한명

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사무실에서는 유색인 직원하나 찾을 수 없었다. 나중에 알고본 즉, 30명으로 구성되어있는 박물관 이사진 중에도 4명만이 소수민족계라고 한다.

기풍당당한 백인남성관장은 퀴즈미술관이 아이디어를 사는 대신, 전시회준비 기획에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되지않을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우리들이 초반 작업은 미리 다 해놓았고, 한인지역사회와 미술관의 긴밀한 협조속에서 전시회의 성격이 크게 변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하고 그의 요구에 응했다. 그 이후, 우리의 손을 떠난 전시회는 그들의 기준에 의해 몇개의 다른 내용물로 채워지고, 우리는 먼 받치에서 불안한 심정으로 쳐다볼 수 밖에 없었다. 가끔 허드렛일이 필요할 적에 그들은 우리들의 도움을 요청했고, 우리는 뎀보이처럼 그때마다 즉시 그곳으로 달려가고는 했다. 주소록 달라, 전화해라, 번역해라, 복사해라, 팩스 보내라 등등 그들의 요구사항은 자잘한 일에만정되어있었고, 우리는 이 행사 노력이 한국과 한인동포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무엇이든 하겠다는 태도로 이러한 수모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미술관측은 우리가 소개한 한국측 기획자까지도 무시하려 들고 중요한 안전의 논의구조속에서도 그를 제외시켰다.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고, 결국 미술관측과 우리쪽 양측의 감정이 상한 가운데, 전시회의 막은 올랐다. 개박일, 백인 미술관관료들과 후원기업주들은 번지르르한 얼굴에, 대규모 '콜롬비아전'에 이어 '한국전'을 올려 구색을 맞추었다는 만족의 웃음을 띠고 있었다.

전시회 자체는 우리가 처음에 구상했던 전체적인 그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한인작가 및 동포들이 우리의 것이라고 여기고 작은 부분까지도 성의를 가지고 관여할 수 있었던 '우리의 전시회'였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과연 누구에게 제일 큰 특이되는 행사였을까? 저들의 무서운 음모에 마보들처럼 가담한 것은 아닐까?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타협적, 수동적으로 대처했던 '서로'인구회' 기획진으로서, 내외한인동포들에게 큰 지체감을 느낀다. 더구나 더한 것은, 이러한 문화기관들이 무리없이 쉽게 우리를 너를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다른 소수민족단체들을 다는 것을 배가하민 세대로 낮은 들고 다닐 수 없을 것 같

다. 가끔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문으로 글을 써야 할 기회가 있는데, 그때마다 어쩔 수 없이 유행어인 'Multiculturalism'을 쓰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글을 다 쓴후 철자법을 확인할 때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이 단어를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뱀어내면서 "찾을 수 없는 단어임 (Can't find!)"라는 깜박거리는 메시지를 보낸다. 갈 곳없는 'Multiculturalism'은 그 단어의 확실한 의미와 자기자리를 찾게 해 준다고 꿈없이 외쳐대고만 있다. '복합문화주의'는 백인중심문화계가 주도하고 있는 공간에 우리가 낄 자리를 조금 내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는 역사속에서 소외당해왔던 소수민족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을 표현함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중심과 주변'의 힘의 관계가 평형이 되는 구조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불가능 할 것이다. 주어진 체계속에서 문화요리사 자격증을 쟁취하길란 쉽지 않다. 하지만, 소스를 치지않은 신선한 샐러드문화를 만들기위해 오늘도 수많은 유색인 문화활동가들은 신문의 문화판을 엮구리에 집어 낄새, 거리로, 언론사로, 집회장으로, 시위장으로, 연대모임으로 바쁜 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복은 (뉴저지 거주)

실험적인것, 모험적인것, 파격적인것, 선각적인것 등등 새로운 지향성을 나는 늘 좋아했다.

한국에서 내가 80년대에 "민중예술전"이란 색다른 이름을 들고 먼저 달려간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때 느낀 실망이 호기심만큼 커서 얼굴이 다 일그리졌었다. 우선 미술교육의 기초적 경험도 못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부흥한 영웅심리의 치기적 행위를 하는것같이 느껴져서 불쾌하기까지 했다. 그런 오래전 느낌의 선입견 때문에 우선 "태평양전"을 관람하러가는 나는 조금은 불안하고 걱정스럽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곳 2세대들이나, 1.5세들의 작품을 보지못했기때문에 그들의 작품을 볼수있다는 기회가 설레이도록 가슴을 뛰게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과 기우에 찬 우려를 했는가를 전시장에 도착하자마자 깨닫고 뉘우쳤다.

우선 퀴즈뮤지엄 전시장이 기대이상으로 만족감을 주었다. 원래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전시장의 조명, 공간처리 등이

continued on next page

